<전 매체> 2022년 3월 17일(목) 13: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문의 : 창업정책총괄과 김주화 과장(044-204-7620), 강주실 사무관(7624), 윤지상 주무관(7632)

대한민국 대표 창업기업 축제 '컴업(COMEUP)'에 민간의 색(色)을 더하다

-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컴업 주관기관으로 선정 -

□ 컴업(COMEUP)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향후 5년간 민간의 눈높이에서 컴업 기획 및 운영 전반을 담당

□ 민간의 전문역량과 창의성을 디딤돌로 삼아, 세계 최고 수준의 창업기업 축제 브랜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 '컴업(COMEUP) 2022'는 11월 9일(수)부터 11월 11일(금)까지 3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며, 세계적 기업들과 창업기업 간의 개방형 혁신전략 시범전시(쇼케이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18일(금) '컴업(COMEUP) 2022'를 기획하고 운영할 민간 주관기관으로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대표 최성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기업 축제인 '컴업(COMEUP)'이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거듭나게 됐다.

※ 컴업(COMEUP) : '97년 시작된 '벤처창업대전'을 모체로, '19년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투자 유치 및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로 전면개편했으며, '21년 50,291명이 참관하는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행사

주관기관 선정은 지난 1월 20일(목)부터 2월 21일(월)까지 공모를 진행해 2월 25일(금) 발표평가 후, 3월 17일(목)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8년에 설립됐으며, '우아한 형제들', '직방', '컬리', '쏘카'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창업기업과 혁신기업 1,800여개사들이 가입한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기업 단체로서,

국내외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창업생태계에 대한 이해도, 운영계획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컴업(COMEUP) 기획부터 홍보, 프로그램 운영*까지 행사 전반을 담당하면서, 향후 5년간** 장기적 관점에서 컴업(COMEUP)을 성장·발전시켜 세계 5대 창업기업 행사로 키워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예시) 참가기업 모집 및 지원(IR, 멘토링, 비즈니스 매칭 등), 온·오프라인 홍보, 행사 세부 프로그램 운영(콘퍼런스, IR 행사, 전시부스 운영 등)

** 주관기관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2년 추가 연장 가능

한편, '컴업(COMEUP) 2022'는 11월 9일(수)부터 11월 11일(금)까지 3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며,

세계적 기업들과 창업기업 간의 개방형 혁신전략 시범전시(쇼케이스), 국내외 창업생태계의 저명인사를 초청한 대규모 회의(컨퍼런스), 국내외 혁신 창업기업 전시, 창업기업과 투자자 간 사업 연결(비즈니스 매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저력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주역이었다"며,

"올해부터는 민간 창업기업 단체가 주관기관으로 컴업을 만들어가는 만큼, 혁신 창업기업과 창업생태계의 관계자들이 더 큰 희망, 원대한 꿈을 나누는 창업기업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강주실 사무관(☎ 044-204-7624), 윤지상 주무관(76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